

## 난고(南郷) 유적군

나라 분지 서남부 고세시(御所市)에 위치하는 조몬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까지의 복합 유적이다. 곤고산(金剛山) 동쪽 기슭의 표고 140m~250m의 고도차가 있는 선상지 위에 펼쳐지는데 고지대에서는 나라 분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가쓰라기가와(葛城川) 강의 지류가 형성하는 작은 골짜기가 평지를 분단하고 있어서 결코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환경에서 형성된 고분 시대 중·후기의 거대한 집락이 유명하다. 그 이전에도 유구는 존재했지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고분 시대 중기 초두에 1km를 넘는 범위에 다양한 시설이 펼쳐지므로 돌연히 출현한 느낌이 있다. 이 고분 시대 집락은 5세기 전반에서 중엽의 전반기와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후반기로 그 내용이 크게 나뉜다.

가쓰라기(葛城) 지역 집단 본거지의 하나이고 근처에는 가쓰라기 지역 최대의 전방후원분인 무로미야야마(室宮山)고분이나 가제노모리토우게(風の森峠) 고개를 지나는 남북도와 미즈코시토우게(水越峠) 고개를 지나는 동서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이 있다.

전반기는 한반도계 도래인이 추진하는 철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 생산이 경제기반인 이하의 여러 시설군으로 나뉜다.

- ① 제사 의례 관계... 유적군 남단의 고지대에서 저지대에 걸쳐 고쿠라쿠지히비키(極樂寺ヒビキ)유적(조출부 모양의 방형 돌출부에 가형(家形)하니와와 꼭 닮은 대형 굴립주 건물과 그 전면에 광장을 배치), 난고오히가시(南郷大東) 유적(하니와에도 형성된 길이 4m에 이르는 대형 수도관(木樋)을 가진 도수시설), 난고야시다(南郷安田) 유적(해당기의 일본 열도 최대의 건물을 가지지만 광장은 없다)이 동서로 늘어서 있고 하니와에도 형성되어 지역을 통합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가 집행되었다고 생각된다.
- ② 수공업 생산 관계... 유적군 서단의 고지대에 난고카도다(南郷角田) 유적의 복합 생산 공방(은, 동, 철, 직호문 녹각 등을 사용한 호화로운 제품을 제작)을 배치하고 유적군 내의 각 처에서 철기 생산이나 구슬 만들기, 유리구슬 생산 등이 이루어졌다.
- ③ 중간층 거주구... 유적군 중앙부에 배치되었는데 난고야나기하라(南郷柳原) 유적의 대벽(大壁)건물이나 이도이가라(井戸井柄) 유적의 굴립주 건물 등 중형 건물을 중심으로 하고 수공업 생산에 종사한 집단을 총괄했다고 생각된다.
- ④ 일반층 거주구... 유적군의 북부를 중심으로 수혈건물 주체의 그룹이 유적군 내의 각 처에 배치되어 주로 수공업 생산에 종사했다고 생각된다.

후반기는 대벽건물이 각 처에 수립되어 기술자계가 아니라 지식인계 도래인이 주도하는 집락으로 크게 변모했다. 그 효시로서 고지대에 대형창고군(이도오타다(井戸大田台) 유적), 저지대에 거관상(居館状) 유구(오이다히노키모토(多田楡木本) 유적)가 조영되어 중간층의 지식인계 도래인의 거주구나 일반층 거주구가 각 처에 배치되었다.

상기의 고분 시대 집락에 관한 조사 결과는 수수께끼가 많았던 호족(수장)을 섬기는 집단의 집락 실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호족(수장) 거관」이나 「도시」를 생각할 때 학사상 크게 공헌했다.

그것 이외에도 조몬 시대 중기 말~후기 초두의 양호한 토기군이나 고대 목간 등이 출토

된 시모차야지조다니(下茶屋地蔵谷) 유적이나 이시부타이(石舞台) 고분을 1/2로 기획하여 만든 방분인 하카나베(ハカナベ) 고분 등이 주목된다.